

종교場所의 回歸性

The Revolution of Place

최진성 (전주공업고등학교, cjsps@hanmail.com)

‘장소의 회귀성’ 또는 ‘장소에 대한 관성’은 사회주체들이 바뀔 때마다 특정 장소에 대한 되풀이되는 관심이란 점에서 사회문화적 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장소는 사회적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경관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적 재생산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 장소 회귀성은 경관과 더불어 장소의 의미를 이해하는 지리코드(geographical code)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관의 장소를 해석하는 요소로 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全州市의 승암산(僧岩山) 일대를 사례로 삼아 後百濟時代부터 현재까지 이 일대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주체들이 바뀌면서 재구성되는 경관들의 순환관계를 파악하였다. 즉 견훤(甄萱)에 의해 후백제의 도읍지를 위한 도성을 쌓은 곳이 승암산의 정상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고려시대에는 대규모의 사찰이 있었던 터와 함께 현재는 동고사(東固寺)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승암산의 산줄기인 발산(鉢山)에는 오목대(梧木臺)와 이목대(梨木臺)가 있어 龍飛御天歌를 비롯한 조선왕조 창업의 설화들이 여기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조선시대 후기부터는 조선왕조의 發祥地로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경관들이 古地圖들에서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그리고 개항기 이후부터는 기존의 유교경관과 천주교 경관들 및 일제의 식민지 경관들이 서로 병치(併置)됨으로써 사회문화적 주체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일제 시대 이후, 가장 활발하게 승암산 일대에 관심을 갖는 사회문화적 주체는 천주교회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1900년대 초부터 오목대에 성당을 세우려 하였으며, 프랑스 선교사들의 묘역을 승암산 중턱에 배치하는 것은 물론, 순교자 일가족의 묘역을 이산의 정상 부근에 조성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초부터 이 순교자 묘역의 聖域化 사업을 진행하면서 승암산의 공식적 지명이 치명자산(致命者山)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현재는 전주교구청을 오목대와 이목대 근처로 이전하려고 계획하는 등 승암산 일대에 대한 장소 회귀성이라는 사회문화적 현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승암산 일대라는 특정 장소는 사회문화의 주체에 따라 형성되는 경관의 형태는 다르더라도 일관된 장소의 의미는 일종의 ‘聖域’ 또는 ‘聖地’로 상징화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소 회귀성이라는 지리코드를 통해 ‘승암산 일대는 성스러운 장소’라는 메시지를 사회문화의 주체 및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관을 통한 장소 회귀성은 시대마다 재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